불 붙은 설정 스님 '친자의혹' 진실공방

PD수첩 추가 의혹제기 VS 조계종 친모 증언 공개

PD수첩 "전○경 최근 국내 있었다"
조계종 "출국 이후 확인된 사실"
전○경 친모 "방송 내용 사실 아냐"
친모 법정소송 증인 참석 전망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PD수첩이 5월 29일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가운데 조계종은 전○경 친모라고 밝힌 김○정 씨(사진 오른쪽)의 증언 영상을 공개했다.

MBC PD수첩이 5월 29일 '큰스님께 묻습니다' 2부를 방송했다. 이번 방영에서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가 최근 국내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로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의 증언을 실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PD수첩) 방송을 전후해서 전○경이 국내에 들어와있었다는 목격자들을 여럿 만났다"고 밝히면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만 목격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미국에서 자신이 전○경의 친모라고 밝힌 김○정 씨를 만나 촬영한 인터뷰 증언 영상을 5월 30일 언론에 공개하며 PD수첩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인터뷰는 5월 7일 진행된 것으로, 한국문화원 장소 협조를 받았다고 조계종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MBC PD수첩과 조계종 간의 설정 스님 친자의혹 진실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씨는 영상에서 "당사자인 나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해 인권을 무시했다. 방송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전○경은 설정 스님 딸 아니다"

김 씨는 전○경의 출산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출가 후 경북의 한 시골사찰서 노스님과 함께 살았다. 어느 법회 날, 노스님은 지방에 일이 있어 출타하고 50대의 김모 처사가 오후 늦게까지 절에 남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김 씨를 이 처사가 성폭행했다.

김 씨는 "처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나는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나를 힘으로 붙잡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했다.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다"며 "부끄러워서 부모님께도 말 못한 채 친한 노보살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김 씨는 출가자의 신분으로 산부인과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보살과 함께 지내며 트레이닝복과 모자로 변복한 채 임신 7개월쯤 처음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양수가 터졌을 때 대구에 있는 병원서 아이를 낳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입원 이틀째 퇴원했다. 이후 입양을 마음먹고 평소 가족들과 인연 있던 수덕사를 찾아가 설정 스님에게 입양 주선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설정 스님 속가 여동생에게 딸을 입양 보냈다. 김 씨는 얼마 뒤 미국으로 건너가 27년째 살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전○경이 6살 무렵, 입양가족은 김 씨 부모에게 연락해 "잠시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거절하지 못한 김 씨 부모가 전○경을 집에 들이고 돌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양가족은 찾아오지 않았다. 사실상 파양인 셈이었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 주소지를 옮겨오면서 전○경 호적이 설정 스님 여동생 측이 아닌 큰형에게 올라간 사실이 드러났다. 설정 스님 여동생 남편이 호적에 올리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설정 스님 연락 안 돼 친자소송"

김 씨는 친자의혹의 핵심 쟁점인 친자 확인소송에 대해 "설정 스님과 갑자기 연락이 끊겨 어쩔 수 없이 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김 씨는 "설정 스님이 나를 피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호법부 스님이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 급한 만큼 친자 확인소송을 내라고 조언해 그렇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김 씨 아버지가 설정 스님 속가 가족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사실을 전해 듣고, 김 씨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씨는 "아버지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면서 무고죄로 큰일 날 수 있으니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 없던 일로 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과거 설정 스님이 주지로 있던 대전 심광사에 주소지를 둔 것과 관련해 출국을 위한 증명서 준비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아이를 낳기 전 외국에 나가려고 준비하다 보니 주소를 잠시 옮겨야 했다. 설정 스님께 허락 받고 실무를 맡던 젊은 스님을 통해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언론이 드라마 작가들인가?"

김 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작가가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다리 건너뛰어 소문만 들은 게 진실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영상공개 후 조계종 측은 PD수첩 2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전○경의 입국사실과 관련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종단은 5월 23일 법원서 받은 사실확인요청서를 통해 인지했다. 4월에 입국해 5월에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불교닷컴과 소송 과정에서 양측 모두 유전자검사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오히려 종단에 전○경 입국 사실을 알려주고 유전자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윤 차장은 또 "김 씨를 법정에 화상으로 증인 출석시켜 양측 변호인이 공동 심문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씨도 필요하다면 국내에 들어오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라며 "종단 내부 검토 후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들에 대한 관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평위, 차별 없는 지방선거 당부

종교평화 문화정착 위한 토론회서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높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없는 지방선거를 당부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 이하 종평위)는 5월 3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을 좌장으로 '종교평화 문화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역 종교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만당 스님은 인사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개개인에게 작은 정부로 다가올 것이다. 지방정부가 튼튼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국가도 이를 기반으로 더욱 완성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했다. 그런데 현재 사람 간 차별이 눈에 띄게 발생하고 차별은 혐오와 증오로 변해 사회적 갈등이 됐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이번 토론회가 통합과 상생, 평등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서 차별금지 내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별이나 종교 영역에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주관적 편견 속에서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

이에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법이든 조례든 제정, 개정이나 폐기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있다. 요즘 미투운동이나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로 인해 일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모두 이런 문제를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한 각오와 연대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형 기자

읽고 쓰고 토론하는 '新불교학교' 문 연다

대안연구공동체, '명법 스님 불교학교' 개강

'불교+인문'書 읽고 글 쓰며
문제 사유 · 토론 중심 강좌
'스스로 공부하기'에 주안점
6월 8일부터 총 12강 진행

사찰 불교대학이나 불교 관련 아카데미의 강의 방식은 '교리 중심 강의'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 같은 강의는 불교 관련 지식은 빠르게 접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체화되기는 어렵다는 장단점을 지닌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읽고 쓰고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교학교가 문을 연다.

인문학 연구 단체인 대안연구공동체(대표 김종락)는 오는 6월 8일부터 '명법 스님 불교학교'를 개강한다.

매월 2 · 4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총 12강에 걸쳐 진행되는 '명법 스님 불교학교'는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지 않는다. 읽고, 쓰고, 사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재들은 불교 관련 고전 · 저서부터 불교와 인문이 접목된 저술까지 광범위다. 이번 학기에 다루는 주요 텍스트로는 〈탈식민시대 우리의 불교학〉 ·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 〈최초의 불교란 어떠했을까〉 · 〈출가란 무엇인가〉 · 〈고대 인도사회와 초기불교〉 · 〈붓다를 만난 사람들〉 · 〈인도불교사상〉 ·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등이다.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도에 따라 교재를 읽고 글을 쓴 뒤 토론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말과 휴가 등을 이용해 집중 세미나와 수행도 병행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화엄탑사 구미불교대학 주지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미학으로 석 · 박사 학위를 받는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불교와 미학, 전통과 현대의 학문적 소통을 추구하며, 새로운 형태의 신행모임 '무빙템플'과 상담연구소 '은유와 마음'을 이끌고 있다.

사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만든 것은 학제의 틀에 맞춘 불교 강좌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법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법 스님은 "이번 불교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 교리나 경전 공부가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불교 관련 텍스트를 접하며 스스로 사유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라며 "소수정예의 장기적인 강좌가 될 것이다. 강좌는 2년까지 계획 중이며, 2년차 과정에는 대승불교와 중국 선불교에 대한 텍스트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학교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불교가 제시한 방법들을 토론 · 성찰하는 데 있다"면서 "과정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명상 강좌를 함께 병행하며 머리만이 아닌 가슴과 몸이 변화하고 삶이 바뀌는 학교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의 (02)777-0616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 첫 韓中 학술대회 연다

한국과 중국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서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한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신성현)은 6월 7일 오전 9시 30분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한중불교 학술교류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교류대회서는 △선종: '불교' 자체로 돌아가라(진견 산동대 교수)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고영섭 동국대 교수) △일본불교의 토착화에 대한 약론(우건과 산동대 교수) △한국선의 보편성과 특수성(한가람 동국대 박사 과정) △대원국사법지 비석 연대에 관한 보증(마총총 산동대 박사 과정) △영명연수와 보조지눌의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정도 스님 · 동국대 교수) △보조지눌과 〈육조단경〉(이해도 산동대 교수) △화엄경을 통해 본 분노의 원인과 조절법(자현 스님 · 동국대 박사 과정) 등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 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❶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❷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❸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❹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